

공정률 63%... 문화전당 2015년 개관 순조

내년 하반기 시운전
예산 1690억원 편성
내부 시설 공사 전에
콘텐츠 조기확정 절실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 내 옛 경찰청 민원실에 대한 시설보강과 내부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이 공간은 노후화 때문에 강철프레임을 외부에 설치하는 등 보강공사가 이뤄진 상태로, 향후 문화전당의 전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의 '문화발전소'가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건립 공정률이 60%대에 진입하면서 오는 2014년 말 완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흐름 대로 공사가 진척되면 문화전당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설 방·난방, 전기·통신시설 등에 대한 전체 시운전을 거쳐 2015년 상반기 개관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일원에 건립하고 있는 문화전당의 전체 공정률이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어린이문화원, 창조원, 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등의 평균 공정률이다.

특히 옛 도청 별관 철거논란으로 가장 늦게 착공(2011년)한 어린이문화원의 공정률도 60%에 올라섰다.

현재 어린이 문화원은 건물 뼈대를 세우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공사 전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문화전당 건립비(1052억원), 운영비(195억원), 콘텐츠 개발비 44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완공의 난제는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같은 신설공간인 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은 올 이미 상반기에 공정이 마무리돼 현재 전기·통신 등 내부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환경 유적이자 보존건물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물)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문화전당의 대표적인 무대인 아시아예술극장(2000석 규모)의 객석 등을 통합적으로 조작용 내부 시스템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공사는 가변(可變) 형태인 아시아예술극장의 객석의 방향·높낮이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핵심 공적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75%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신축·내부시설 등 하드웨어 공정 전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문화전당 건립비(1052억원), 운영비(195억원), 콘텐츠 개발비 44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완공의 난제는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같은 신설공간인 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은 올 이미 상반기에 공정이 마무리돼 현재 전기·통신 등 내부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환경 유적이자 보존건물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물)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문화전당의 대표적인 무대인 아시아예술극장(2000석 규모)의 객석 등을 통합적으로 조작용 내부 시스템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공사는 가변(可變) 형태인 아시아예술극장의 객석의 방향·높낮이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핵심 공적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75%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신축·내부시설 등 하드웨어 공정 전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문화전당 건립비(1052억원), 운영비(195억원), 콘텐츠 개발비 44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완공의 난제는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같은 신설공간인 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은 올 이미 상반기에 공정이 마무리돼 현재 전기·통신 등 내부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환경 유적이자 보존건물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물)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문화전당의 대표적인 무대인 아시아예술극장(2000석 규모)의 객석 등을 통합적으로 조작용 내부 시스템 공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 공사는 가변(可變) 형태인 아시아예술극장의 객석의 방향·높낮이 등을 전자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핵심 공적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75%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물신축·내부시설 등 하드웨어 공정 전체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갈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내년 정부예산안에 문화전당 건립비(1052억원), 운영비(195억원), 콘텐츠 개발비 443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완공의 난제는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과 같은 신설공간인 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아시아문화정보원 등은 올 이미 상반기에 공정이 마무리돼 현재 전기·통신 등 내부시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환경 유적이자 보존건물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물)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오늘 개막

27~28일 광주에서...유네스코 국제회의도

“문화수도” 광주에서 27~28일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가 열린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07년 중국 난퉁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됐으며, 올해는 유진룡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 부장,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일본 문화과학성 대신이 참석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3개국의 도시 한 개씩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광주시가 뽑혔고,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각 요코하마시와 취안저우시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문화유산 보

호와 협력 ▲문화콘텐츠 산업 협력 강화 ▲문화예술 교류 협력 강화 ▲미래 문화세대 육성 ▲협력의 내실화 등의 합의 사항을 담은 ‘광주공동합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선 27일에는 한·일, 한·중 양자 회담도 마련된다.

같은 기간 광주시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는 공동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10년간의 노력,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제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인류 정체성과 창의성의 원천인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 10주년 성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무형유산 분야 전문 국제기구로,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대한 무형유산보호 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 문화협력을 선도하고 있다.

/*최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못드려 죄송”

차대통령 사실상 사과...“임기내 반드시 실천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 대상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평배를 겪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애초 유감표명 수준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예측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야당 측은 대국민 담화를 통한 직접 사과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한 간접 사과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야권은 이를 ‘공약 파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 재원에 대한 지자체 반발을 의식한 듯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율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비통한 심정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야당은 공약 파기를 운운하며 대통령을 깎아내릴 게 아니라 기초연금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금방 파기하는, 원칙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한 뒤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어떤 공약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내년예산 357조7000억...복지 106조

2014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지출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수립했다. 총수입은 올해(372조6000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은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4.6%) 등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세입 여건이 어렵지만 올해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

건·복지·고용 105조9000억원(올해 대비 8.7% 증가) ▲교육 50조8000억원(2.1%) ▲문화·체육·관광 5조3000억원(5.7%) ▲R&D 17조5000억원(4%) ▲국방 35조8000억원(4.2%) ▲공공질서·안전 15조7000억원(4.6%) 등이다.

당초 대폭 삭소가 예상됐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조3000억원, 15조3000억원으로 4.3%, 1.7% 줄어든 데 그쳤다.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재정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 515조2000억원(GDP 대비 36.5%)으로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합뉴스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2013 The Great Battle Of Myeongryang Festival

명랑대첩축제

진군의 기상! 물들목의 함성!

2013. 9. 27(금) ~ 9. 29(일) 3일간
해남군 우수영관광지·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

주최: 전라남도, 예남군, Jindo 진도군
주관: (재)명랑대첩기념사업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여군, 한국관광공사
(재)명랑대첩기념사업회 061)286-5260~4 www.mlcd.kr